

## 김웅진 동문을 (28 회) 회고하며

구재훈 (74 년)

예과 때 처음 만나게 얼마 안된것같은데 벌써 이 세상에서 작별의 인사를 할때가 되다니 세월이 살같이 날아 간다는것을 실감하게 되는구려. 나이 70 이 넘으니 이 세상 떠날 준비는 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것은 나만이 아닐꺼요. 103 세되신 김형석 교수가 김태길 안병욱 교수 살아계실 때에 만나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65-75 세라는데 세분이 공감 했다는 데 고별 인사를 하려하오.

고교 동창인 강기서 동문과 항상 같이 다니는것 보면서 가나다 이름 순서로 두반으로 나누어지니 자주 만나게 되었고 본과 3 학년때 7 명이 함께 ECFMG 공부 하며 항상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던 모습이 그림구려. 결혼식때 함잡이한 기억도 생생하오. 군의관 마치고 모교 해부학 교실에 있다 모교에서 방사선과 수련의 과정 마치고 1981 면 도미해서 Flushing, NY 에서 radiology practice 하다 최근까지 Lincoln Medical Center, Bronx 에서 full time 으로 일했지 않소. 뉴욕 갈 기회있을 때마다 연락 하면 개업 바쁜중에도 반갑게 만나주고 특히 우리 아이들과 NY 집 방문했을 때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김주이 최태식 동문 또 김정용 선배등 초청해 대접해준것 고맙소이다. 또 매년 연말이면 통화하던 터인네 작년에는 연락이 잘안되었소. 남달리 어려운 한자를 많이 알고 또 연말이면 휘호체로 안부 카드 보내주던것도 더 이상 못보겠구려. 한의사이신 아버님 덕분에 약초넣는 많은 서랍들에 잘사용하지 않는 한자들로 이름들이 적혀있어 익히지 않았나 생각되는구려.

우리 동기의 만년 회장인 은희철 동문의 수고로 40 주년 기념행사하고 지리산 한화 레조트에서 놀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 까지 함께 여행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떠오르오.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구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아들 (용한) 딸 (방한) 잘 키워 세 손자 손녀 두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맑은 일에 신실한 가장이었소. Pulmonology and critical care 하는 용한에 의하면 COVID booster shot 맞고 많이 힘들어하다 정확한 진단인 AL type cardiac amyloid and 20% plasma cells in marrow with amyloid deposits (systemic amyloidosis)받은게 6 월 14 일. 그리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heart failure 로 부르심이 왔다하니 급작한 죽음에 실감나지 않소.

한편으론 장기간 치료하기 힘든 병과 씨름하며 고통받지 않은게 다행이라 생각하오. 함께 공부했던 방사선과 정용인 동문도 채식암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부르심 받은것 기억하오.

모든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타향살이 접는 일이 각자의 코 앞에 다가왔다는것을 다시 깨달으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밭줄을 꼭 잡고 이사 준비하며 삶을 정리해야하겠소. 그러나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것을 고대하기에 또한 산 소망이 있다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설레이고 즐거운일이니까.



40 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웅진, 구재훈, 김상현 (졸업후 30 년 이상 중국 의료선교함)